프로야구 스프링캠프 '노심초사'

외국인 선수 입국 관리 애간장… "현지 비자 문제" 자가격리·컨디션 회복으로 연습경기 등판 가능성↓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국내 스프링캠프를 준비 중인 프로야구 KBO리그 10개 구단이 외국인 선수 입국관리로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외국인 선수들이 2월 1일 시작하는 스프링캠프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선 2주 자가격리 기간을 고려해 17일까지 입국해야 하는데, 3명의 외국인 선수가 모두 입국한 구단은 아직 없다.

한 구단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비자 발급 등 현지 행정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빨리 입국해야 정상적으로 전지 훈련을 소화할 수 있는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17일 현재 외국인 선수가 한국 땅을 밟은 구단은 NC 다이노스, SK 와이번스, 한화 이글스뿐이다. 세 구단의 사정은 다른 구단보다 나은 편이다.

NC 드루 루친스키와 애런 알테어는 16일 입국해 각각 창원 북면 소재 펜션과 창원 NC파크 인근 아파트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SK도 같은 날 제이미 로맥과 아티 르위키가 입국해 스프링캠프지인 제주도로 이동했다.

지난해 최하위를 기록한 한화는 상황이 가장 낫다. 카를로스 수베로 한화 신임감독은 11일 가족들과 함께 입국해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17일엔 새 외국인 투수 라이언 카펜터와 외국인 타자 라이온 힐리가 한국 땅을 밟았다. 외국인 투수 닉 킹엄이 입국하면 한화는 10개 구단 중 가장 먼저 외국인 선수 전원이 입국하게 된다.

KIA 타이거즈도 조만간 외국인 선수들이 입국한다. 다니엘 멩덴과 프레스턴 터커는 18일에 입국하고 애런 브룩스는 22일에 들어올 예정이다.

kt wiz는 조일로 알몬테가 20일에 입국할 계획인데, 나머지 두 선수의 입국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롯데 자이언츠는 댄 스트레일리, 딕슨 마차도, 앤더슨 프랑코의 취업비자 문제를 해결한 뒤 입국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아직 외국인 선수들의 입국 일정을 잡지 못한 구단도 있다.

두산 베어스는 외국인 선수 3명 모두 2월 초에 입국할 예정이다. 삼성 라이온즈와 LG 트윈스는 선수들의 비자 발급 상황을 점검하는 단계다. 키움 히어로즈는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외국인 선수 계약을 완료하지 못했다.

2월 이후 입국하는 외국인 선수들은 스프링캠프를 정상적으로 소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자가격리에 2주, 컨디션 회복에 2주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특히 투수는 컨디션 회복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습경기에 등판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한국전력 박철우의 매서운 공격 17일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0-2021 V리그 남자부 한국전력과 현대캐피탈의 경기에서 한국전력 박철우가 공격하고 있다. 이날 경기는 풀세트 접전 끝에 3-2(25-22, 22-25, 25-22, 25-27, 17-15)로 현대캐피탈이 승리했다. 연합뉴스

재미교포 케빈 나 '맹타'… 통산 5승 정조준

PGA 소니오픈 3R 공동2위 김시우 23위·임성재는 60위

재미교포 케빈 나(38)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오픈(총상금 660만 달러) 셋째 날 9타를 줄이는 맹타를 휘두르며 통산 5승을 정조준했다.

케빈 나는 17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레이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소니오픈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이글 1개와 버디 7개를 쓸어 담아 9언더파 61타를 쳤다.

중간합계 16언더파 194타를 기록, 호아킨 니만(칠레)과 공동 2위에 오른 케빈 나는 이날 9타를 줄여 단독 선두로 올라선 브렌던 스틸(미국·18언더파 192타)을 두 타 차로 추격했다.

공동 19위로 3라운드를 시작한 케빈 나는 초반 2번(파4)과 4번 홀(파3) 버디로 예열했고, 9번 홀(파5)에서 두 번째 샷을 홀 2.5m가량에 떨어뜨리며 만든 이글 기회를 살려 기세를 올렸다.

한국 선수 중에는 김시우(26)가 공동 23위(11언더파 199타)로 가장 높은 순위에 자리했다.

2라운드 공동 35위에 그쳤던 김시우는 이날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를 솎아내 10계단 이상 뛰었다. 선두와는 7타 차, 공동 9위와는 3타 차다.

전날 15위였던 최경주(51)는 한 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39위(9언더파 201타)로 내려앉았다.

이경훈(30)도 최경주 등과 공동 39위에 올랐고, 임성재(23)는 공동 60위(6언더파 204타)로 3라운드를 마쳤다. 연합뉴스

PGA투어 소니 오픈에 참가한 재미교포 케빈 나. 연합뉴스

최지만-탬파베이 60만달러 이견

연봉 합의 실패 조정 신청 최소 160만달러 이상 전망

미국프로야구 탬파베이 레이스에서 뛰는 한국인타자 최지만(30)이 연봉 조정을 신청했다.

탬파베이 지역지 '탬파베이 타임스'와 AP통신은 16일(한국시간) "최지만과 라이언 야브로가 구단과 합의에 실패해 연봉 조정 신청으로 간다"고 전했다.

최지만이 245만달러(약 27억원)를 요구한 데 반해 구단은 185만달러(20억원)를 제시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연봉 조정 신청은 구단과 선수가 연봉 이견으로 계약에 실패했을 경우 제3자인 연봉 조정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연봉을 조정하는 제도다.

3명의 조정위원이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한쪽의 손을 들어준다.

2018년 풀타임 빅리거가 된 최지만은 지난 시즌을 마치고 처음으로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을 얻었다.

최지만은 지난해 42경기에 나서 타율 0.230, 3홈런, 16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741로 2019년 만큼의 활약을 펼치진 못했다.

좌완 투수에게 약점을 보이며 상대 투수 유형에 따라 선발 출전 여부가 정해졌고, 시즌 막판엔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포스트시즌에서는 달랐다. 최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 뉴욕 양키스의 에이스 게릿 콜의 천적으로 주목받았다.

월드시리즈에서 한국인 타자 첫 안타를 기록했고, 1루 수비에선 다리 찢기로 많은 화제를 불러 모았다.

현지에선 최지만이 지난해 연봉(85만달러)의 2배 가까운 160만달러(약 18억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점쳤다. 연봉 조정 신청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지만은 현지 전망을 넘어서는 연봉을 손에 쥐게 됐다.

탬파베이는 좌완 투수 야브로와도 연봉 합의에 실패했다. 야브로는 310만달러를 요구했지만, 구단은 230만달러로 맞섰다.

탬파베이는 23년 역사상 같은 해에 2명이 연봉 조정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2번째다. 탬파베이 타임스에 따르면 탬파베이는 총 11차례 연봉 조정에서 여섯 번 연속으로 이기다 2016년 이후 5번을 내리 졌다. 연합뉴스

EPL 레스터 시티 리버풀 제치고 2위

사우샘프턴전 2-0 완승

잉글랜드 프로축구 레스터 시티가 사우샘프턴을 제물로 2연승을 달리며 프리미어리그(EPL) 2위로 올라섰다.

레스터 시티는 17일(한국시간) 영국 레스터의 킹 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021시즌 EPL 홈 경기에서 제임스 매디슨의 결승골을 앞세워 사우샘프턴에 2-0으로 이겼다.

레스터 시티는 전반 37분 유리 틸레만스가 찔러준 패스를 매디슨이 골대 오른쪽 사각에서 윗그물을 찌르는 슈팅으로 마무리해 1-0을 만들었다.

원정에서 강팀을 상대로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이던 사우샘프턴은 실점 한 뒤 추격의 고삐를 죄었지만 좀처럼 득점하지 못했다. 공격의 방점을 찍어줄 주전 공격수 대니 잉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경기에 나서지 못한 게 아쉬웠다.

결국 이날 경기의 2번째 골도 레스터 시티의 차지가 됐다. 후반 추가시간 하비 반스가 골키퍼와 일대일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슈팅해 레스터의 승리에 방점을 찍었다. 연합뉴스

2021 태양광 보조사업 설치희망자 예비모집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

영업사원 모집
- 태양광 보조사업 영업 경력자 우대
- 태양광발전소(RPS) 영업경력자 우대
-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우대
▶이력서접수 : 워크넷 (work.go.kr)

단독 주택
○ 기존/신축 주택 소유자, 소유예정자
○ 설치용량 3kW까지 지원
○ '20년 기준 공사비의 50% 지원
○ 공동주택 지원가능
○ 타운하우스 등 단체설치 특별우대

상가 건물
○ 사무실/식당/펜션/공장/병원/학원
○ 설치용량 50kW까지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지원사업 적용
○ 건물 용도별 맞춤형 컨설팅/설계/시공
○ 공사비의 약 50~55% 지원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담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